

세월호, 잊지 말아요



오마이뉴스 박현진



잔인했던 봄을 지나 뜨거운 여름이 우리 곁을 찾았지만 여전히 세월호는 그 날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들은 가족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고 계십니다. 지난 7월 4일 저녁 부산역에는 부산을 찾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세월호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대회'에 부산민언련 회원들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7반 학부모들이 단상에 올라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하실 때 우리는 그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비까지 내리던 지난 7월 15일 밤과 16일, 단원고 2학년 친구들이 안

산에서 출발해 서울 국회까지 1박2일 행진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며 길을 나선 아이들, 가슴에 떠난 친구의 이름표를 붙이고 손에는 기억하라 0416 노란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그 분들이 국회에서 거리에서 단식을 하며 특별법 제정을 부르짖고 있는 7월입니다. 언론은 특별법에 대한 제대로 된 보도는 빼먹고 의사자, 특례입학을 부각시키며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7월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세월호를 잊을 수 없는 7월입니다.

정리 정수진

Contents

02 언론이슈

KBS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 과제

03 언론비평

KBS부산 <시선360> 들여다보기

04 활동소개

6.4지방선거 간담회 외

05 찾아갑니다

이원규 회원/ 차진구 회원

06 추천합니다

휴가지를 추천합니다

07 회원활동/

새회원소개

08 그림세상/

고맙습니다

언론이슈

새노조의 파업, 그리고 남은 것들 제도를 넘어 문화로



장흥태

KBS부산 촬영감독, 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사무처장

2014년 5월 파업을 선택하다

KBS 내부에서 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애칭은 '새노조'다. 미디어매체나 산별상급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시민단체도 KBS 내 하나의 소수조합인 우리를 '새'노조라 칭한다. MB정권이 정연주 전 사장을 쫓아내고 관제사장으로 이병순, 김인규 씨를 줄줄이 앉힌 후 공정방송을 등한시한 기존노조(KBS 노동조합)의 틀을 깨고 새로이 만든 노동조합이기 때문이다. 그런 새노조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2014년 5월 파업을 택한다.

세월호가 각성시킨 KBS뉴스

세월호 침몰과 함께 대한민국 곳곳의 치부가 드러났지만 언론은 이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이었다.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그 중심에 있었다. 전원구조 오보, 보도국장의 실언, 부실한 보도 등은 유가족들을 절망에 빠뜨렸고 급기야 팽목항을 비롯한 현장에서 기자와 증계 스텝이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다. 사내 게시판에는 젊은 기자들의 반성과 절규가 이어졌고 조합 또한 세월호 보도에 대한 심각성을 수없이 지적했지만 김환영 사장을 비롯한 보도국 수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급기야 어버이 날인 5월 8일,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유족들이 KBS를 항의방문 사태까지 벌여졌다. 사장 김환영은 새벽까지 이어진 가족들의 한 맺힌 눈물을 외면했고, 이들이 청와대로 발길을 돌리

자 겨우 효자동으로 달려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직위해제된 보도국장 김시곤의 폭로가 이어졌다. 김환영 사장이 세월호 뉴스의 연성화와 9시 20분 후 배치를 지시했고, 취임 후 상시적으로 큐시트를 체크하며 뉴스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날 날이 토해냈다. 기자협회는 위원회를 꾸려 진상을 규명했고 제작거부로 맞섰다. 새노조 역시 파업을 결의하고 이사회 의 사장해임을 촉구했다. 다행히 기존 KBS노조도 힘을 보탰다. 양대 노조와 각 협회를 비롯한 사내 직능단체의 압박은 결국 이사회 의 김환영 사장을 해임 결정을 이끌어냈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다

그럼에도 KBS의 미래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근본적인 문제지만 지배구조(이사회 의 여야 7:4구조) 개선이 이뤄진다면 KBS 정상화는 자동적으로 가능할까?

하나의 조직이나 단체를 규정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조직을 유지하는 제도와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구성원들의 조직문화다. 바람직한 사회가 건강한 법체제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같이 할 때 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다.

KBS의 경우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이나 사장 선임과 같은 주요결정 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구성원들이 낙하산을 거부하고, 공정방송에 대한 가치를 지키는 문화 역

시 그 만큼 소중하다. 지배구조에 있어 KBS보다 취약한 BBC가 영국의 자존심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소중히 유지한 구성원들의 자존심과 조직문화 때문이다.

KBS 새노조는 간혹 주변사람들에게 다른 노조에서 볼 수 없는 한(恨)이 느껴진다는 평가를 들곤 한다. MB정권 이후 주객이 바뀌고, 진실이 호도되고, 언론인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측과 교섭권조차 없는 소수노조가 힘겹게 싸워 온 역사 때문일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단언하건데 이 한은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인으로서 또 진정한 저널리스트의 고민이 꾸준히 유지된 탓이다.

이번 8일간의 파업을 마치며 스스로 확인한 것은 제도만큼이나 중요한 공영방송 구성원의 문화, 즉 제작자물성에 대해선 어떤 양보도 허용치 않는 용기라는 사실이다. 여전히 KBS에 새노조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 희생적인 문화가 계속 전파될 것이라 믿는다. 비운 뒤 굳어가는 땅처럼. 외부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KBS는 국민의 방송'이라는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구성원이 아직도 이 조직엔 적지 않다. 하여 다시 파업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피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누가 뭐래도 KBS는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비평

잘 생겼다 <시선 360> 지역의 노동, 환경, 인권 등 이슈 짚어내다



모니터 부산민언련 모니터팀 / 정리 오혁진

지역방송 프로그램은 존재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 지역방송 프로그램을 접하기란 쉽지 않다. 방송 프로그램 대부분은 중앙에서 제작되며, 그나마 지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은 심야에 방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역방송 프로그램은 외적으로 '지역 시청자들의 무관심'을, 내적으로는 중앙과 대비되는 '열악한 제작환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방송 제작 환경이 이렇게 척박한데 굳이 지역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물론 '그렇다'이다. 지역방송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담아내는 소중한 매체이다. 그것은 중앙방송 프로그램이 할 수 없는 지역방송 프로그램만의 온전한 몫이다.

부산지역 유일 시사방송 :

KBS1 <시선 360>

시사 프로그램은 속보를 중시하는 뉴스와 달리 심층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현재 부산지역 시사 프로그램은 KBS <시선 360>이 유일하다. 4/10 <깜깜이 교육감 선거, 당신의 선택은?>으로 첫발을 디딘 이 프로그램은 이후 정치, 환경, 노동, 인권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다루었다. <시선 360>은 현재 8회까지 방영되었으며 그 중 5/1 <고객만족도 1위? 삼성전자 수리 기사들의 눈물>과 5/15 <부산형제 복지원 살아남은 그들의 외침>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삼성전자 수리 기사들의 눈물>은 해운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실직한 삼성전자 수리 기사들의 이야기이다. 이 방송의 가장 훌륭한 점은 삼성 문제를

회차	날짜	주제
1	4/10	깜깜이 교육감 선거, 당신의 선택은?
2	4/24	세월호 참사, 부산은 안전한가?
3	5/1	고객만족도 1위? 삼성전자 AS기사들의 눈물
4	5/15	부산형제복지원 살아남은 그들의 외침
5	5/22	시민안전 적색경보! 고리원전 1호기, 부산의 안전은?
6	6/12	6.4 지방선거 결과, 부산의 미래는?
7	6/19	늘어나는 벽화, 부산 어떻게 그릴 것인가?
8	6/26	보수부산은 왜 진보교육감을 선택했나
9	7/10	도시철도 1호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까?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삼성 관련 문제들은 언론사들이 외면하는 주제이다. 실제로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故 염호석씨 시신 탈취 사건 당시 10개 종합일간지는 6일간 총 11건을 보도했을 뿐이다. 이같이 <시선 360>은 중앙언론에서도 외면한 이 문제를 지역에서 발생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폐업을 통해 집중 조명했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짜임새가 있고 체계적이었다. 우선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들의 열악한 상황들을 소개한 후, 해운대 서비스센터 폐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수리협력과 삼성과의 불법도급 계약 문제와 노동부의 부실한 감독을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살아남은 그들의 외침>은 1980년대 부산 주례동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대규모 인권유린을 재조명한 프로그램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 내에서 3000여명을 감금, 폭행하거나 강제노역에 동원해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지만 부산시민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방송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룬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현재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재발의 되는 시점이라 방송 시기도 적절했다. 무엇보다 형제복지원 문제를 단순히 박원장 개인의 범죄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돋보였다. <시선 360>에서는 내무부 훈령 410호 근거로 부랑인들을 대규모로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 맺은 점, 경찰 근무평점 방식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선도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의 범죄임을 상기시켰다.

좋은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깊이 있는 내용, 짜임새 있는 구성, 영상미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획 의도의 충실한 구현이다. 이런 관점에서 <시선 360>은 좋은 프로그램이다. <시선 360>은 '지역의 주요 아젠다를 제시하고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추구한다'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고, 실제로 교육감 선거, 고리원전 1호기, 부산도시철도 1호선 안전문제 등 지역 주요 현안들을 성실하게 다루었다. 게다가 부산의 문제를 다루면서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인권, 노동, 환경과 같은 '보편성'도 동시에 획득했다. 4명의 PD와 5명의 작가. <시선 360>의 제작진들이다. 비록 척박한 지역 방송의 현실이지만, 그들의 분투를 응원한다.



선거보도 양적, 질적으로 아쉬움 크다 지역언론-시민사회 지속적인 소통이어가야 6·4 지방선거 보도 평가 간담회

지역 언론의 6·4 지방선거 보도를 돌아보는 간담회가 열렸다.

우리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언론공공성지킴이부산연대는 7월 2일 오후 3시 국제신문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6·4 지방선거 보도 평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운영태 본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고, 황재문 부산YMCA 시민중계실장,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이원규 민중연대 미디어팀장, 본회 박정희 사무국장과 강필희 국제신문 노조 위원장, 서준녕 부산일보 노조 지부장, 오상민 KNN 노조 위원장과 진재운 KNN 노조 공정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먼저 박정희 사무국장이 부산민언련의 선거보도 결과를 전했다. △ 전반적인 선거보도 및 기획보도의 부족 △ 부산시장에만 보도 집중 △ 공약 검증 및 정책보도 미흡 △ 검증없이 의혹받아쓰기 △ 고리원전 등

지역의제 부각 실패 △ 지방선거 의미와 참여 방법 등 해설 보도 부족 등을 지적했다. 또 제목이나 사진 등에서 일부 편파적인 보도도 있었다고 전했다.

황재문 실장 역시 세월호 여파와 부산시장 선거에 집중된 보도로 기초단위 선거는 제대로 보도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고, 이훈전 처장은 이번 선거가 7표를 행사하는 선거였는데 모르는 유권자가 많았으며 선거 방법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원규 팀장은 후보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다며, 관행적인 보도 외에도 '세월호 참사'나 '고리원전' '국정원 선거개입' 등 시민사회의 폭넓은 주제도 다뤄 후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폭을 넓혔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언론노조 참석자들도 대부분 공감했다. 국제신문 강필희 지부장은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유권자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기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 방식을 답습했다고 자평했다. KNN 진재운 공방 위원장은 후보들이 주장하는 의혹을 받아쓰기만 했다는 비판에 대해 적절한 비판이라고 수긍했고, 선거토론방송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부산일보 서준녕 지부장은 취재 지역이 부산·울산·경남을 포함하다 보니 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까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토론했다. 또 양적 균형에 심층보도·검증 보도로 나가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또 시민사회의 지적에 수긍하면서도, 변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끝으로 KNN 오상민 위원장은 선거보도 간담회에서 나온 논의들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을 당부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계속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민언련 활동단신



'의료민영화 반대' 한 목소리

박근혜 정부가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지역사회와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6월 24일 시청 앞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반대 보건의료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 참여했고 7월 10일 오후 5시부터 부산대 지하철 역 앞에서 진행된 의료민영화 반대 시민서명운동에도 참여했다.

<슬기로운 해법> 회원번개

6월 27일 국도가람예술관에서 거짓말을 일삼는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한 언론의 실태를 다룬 영화 <슬기로운 해법>을 회원들과 함께 관람했다. 갑작스런 번개 공지에도 불구하고 5명의 회원이 참여해 영화를 보고 소감을 소



감을 나누는 치맥 뒤풀이를 했다. <슬기로운 해법>은 소수만 보기 아까워 더 많은 회원과 함께 보기로 결정! 8월 26일 저녁 7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기억해주세요.^^

서병수 부산시장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

7월 1일은 서병수 신임 부산시장이 취임한 날이다. 부산시민연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병수 시장은 시민참여 보장과 시민·공공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개발, 고리원전 가동 중단, 부산에코델타시티 개발 등 대표적인 부산 지역의 난개발·안전 의제에 대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공론화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더 나은 부산, 사회 만드는 게 목표”

차진구 회원

차진구 회원은 부산지역 시민사회운동에서 유명 인사다. 더 나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라고 말하는 그의 현재 신분은 백수. 1986년 대학 1학년 때부터 시작해 온 영도솔빛야학을 군 전역 이후로도 계속하다가 영도주민공동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영도에서 한겨레신문지국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2002년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가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민 사회 활동가의 길로 나섰고, 어느새 10여개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부산 민연련과의 인연은

2004년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맺게 되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후보 캠프의 언론 담당 일을 맡아 49.34%의 지지율을 이끌어 낸 주역이기도 한데 이전부터 정치권으로부터 끊임없는 손길을 받았으나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했다. 그 덕분(?)에 남은 것은 백수 자리와 서명수 선거캠프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고발인이 된 것이다. 정치 현장에서 보게 된 언론의 문제점으로 ‘공공

연한 줄대기’와 ‘비공식적인 촌지 관행’을 들었는데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부산민연련에 대해 바라는 점으로 임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재정을 탄탄하게 만드는 사업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스스로 회비 증액을 하는 식으로 말이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으로는 ‘대안정책연구소’를 설립해서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민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한다. 부산에서 야당이 제 구실을 못하는 현실에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제3섹터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엔 더 나은 부산,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부산민연련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행사는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한다는 차진구 회원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진다. 실제로 차진구 회원은 꼭 필요한 토론회나 기자회견에 함께 해오셨다.

앞으로도 약방의 감초처럼 부산민연련이 꼭 필요로 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정리 정수진

이원규 회원은 부산겨레하나 사무차장, 민주노동당 기획국장, 통합진보당 연수원장을 거쳐 지금은 부산민중연대에서 자주통일국장, 언론미디어 담당일을 하고 있다.

부산겨레하나에서 일하던 2008년, UCC 페스티벌에 우리단체와 공동주최로 참여하며 첫 만남이 시작됐다. 이전부터 언론이나 여론 문제에 관심있었고, 특히 광우병 사건을 통해 언론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하고 있던 차에 UCC 페스티벌을 함께하며 바로 가입했다고.

이후로도 민연련의 주요 행사나 연대 활동의장에서 만나고 있는데, 현신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행사 진행, 퍼포먼스, 영상 제작 등을 척척맡아 다재다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부산민중연대가 세월호참사 부산범시민주모위 사무처를 맡고 있어 ‘추모사업’과 ‘진상규명위한 특별법제정 천만인 서명운동’을 위해 애쓰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서명을 벌이기도 했는데, 갖은 회유와 유혹, 왜곡된 시선들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텐데도 오직 ‘우리 아이들이 죽게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뜻으로 활동하고, 또 서로 보듬고 보살피는 모습을 보며 정말 단단하다는 생각을 했단다. 조금이나마



민연련의 목소리가 더 많이 퍼져나갔으면 이원규 회원

도움이 되기 위해 부산시민주모대회에서 영상도 만들고 또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편으로 민중연대에서 맡은 일이 자주통일국장이라 8·15 행사를 준비하고, 예고없이 실시하는 한미일합동훈련과 한일군사동맹 추진에 대한 대응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 이원규 회원은 세월호 참사를 보며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고민이 많은데, 통일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평화분위기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특히 내년이 분단 70년인데,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원규 회원은 언론이 권력화되어 있어 문제

라고 한다. 보수 언론만이 아니라 진보 언론도 제식구감싸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감시와 비판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부산민연련이 언론의 문제를 알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며, 이런 활동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또 소식지를 보면 회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의미있고 중요하며, 더 많이 시민이 참여해 민연련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울림이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리 박정희

나의 여름 휴가 이야기

정리 정수진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여름, 우리 회원님들은 어떤 휴가를 꿈꾸시나요?
추천하고 싶은 휴가지가 있으시다면서 살짝 공개해 주세요.
내 평생 잊지 못할 여름 휴가의 추억 하나쯤은 갖고 계시잖아요.
네? 무슨 휴가 타령이나고요? 사정이 있어 못가는 분도 있는 모양이군요.
어쨌거나 여름과 단짝처럼 붙어다니는 단어, 휴가!
우리 부산민언련 회원들의 휴가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특별(?)했던 여름 휴가

첫째(7살)는 8월, 둘째(24개월)는 7월에 태어난 이유로 2번의 여름휴가를 조리원에서 보낸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첫 아이를 얻은 2008년 여름, 조리원에서의 첫 여름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 더욱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첫아이라는 설레임과 두근거림, 예정일보다 빠른 출산까지 겹쳐 더욱 덥고 힘들게 느껴졌던 그 여름.

산모는 움직이기 힘들다고 계단을 오르기를 여러 차례, 방으로 돌아오면 보일러 빵빵한 뜨거운 방이 질 반겨주었죠. 산모와 함께 몸조리 아닌 몸조리를 하면서 육수를 쏟아내던 기억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월급날보다 더 손꼽아 기다리며 여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차피 권한 없는 통장 있으나 마나...)

여름이 되고 아이들 생일이 다가오면 조리원의 여름이 생각나 집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가끔 웃곤 한답니다. 혹 자녀 계획이 있으시다면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저처럼 무더운 여름은 피해 보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흠.... 10~11월은 조심하세요! ^^

왕현호 회원



이병 아들과 함께한 지난 여름휴가

지난해 4월 아들이 부산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양구로 군입대를 했습니다. 7월 무더운 여름날에 너무나도 보고싶은 아들의 첫 면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들뜬 마음으로 손꼽아 그 날만 기다리는데, 전날밤 저녁에 소대장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들이 유격가서 두발이 다 찢어지고 잘 못 걷는다고 될 수 있으면 안 오길 부탁하는 말에 가족들은 충격과 멘붕으로 ~!

면박 펜션 예약과 모든 준비가 다 된 상태에 포기하기 싫고 무엇보다 발다친 아들이 너무 궁금해서 무조건 얼굴이라도 보겠다고 새벽을 달려 가보았습니다. 절뚝거리며 나온 아들과 입대 이후 첫 만남 ~ 보고 싶던 아들을 보니 더위고 뭐고 한방에 사라지더군요. 아들의 병원치료 후 펜션에서 맛난거 실컷 먹고 놀다 왔습니다. 우리의 지난 여름휴가는 이병 아들과의 면박이었습니다.

조보고파 회원

누구나 한 번쯤 꿈 꿔 보지 않을까? 파란 하늘 아래 끝도 없이 펼쳐진 초원이나 사막을 낙타 한 마리로 건너가는 자신을, 자동차 영업 일을 하다보니 보통 제대로 된 여름 휴가를 가는 호사를 누리지 못했는데 올초에 우연찮게 몽골을 가는 사진가들의 무리에 따라가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여름이 몇 달이나 남아 있는 시점이었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러자고 했다. 웬지 몽골에 가면, 사막에 가면 맘이 넓어지고 시원스러울 것 같았다. 사진을 찍을 줄도 모르고 장비도 없지만 그보다 여행을 간다는데 맘이 끌렸다. 낙타를 타든 말을 타든 양고기를 통째로 요리한 음식을 맛보든 그런 것보단 광활한 곳에 혼자 있는 나 자신을 떠올리니 좋았다. 밤하늘에 무수히 쏟아지는 별을 보며 낭만을 찾거나 시를 흥얼거리고 싶은 맘이라도 생길지 가봐야 아는 것이지만, 선진국 여행처럼 갖춰질 것 갖춰져서 편안하게 쉬다 오는 여행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민족의 시원(始原)이었을 지도 모를 그곳으로 나는 간다. 가족들과 같이 가진 못하지만 다음에는 꼭 같이 하리라는 약속을 맘 속으로 하며...

장현수 회원

회원 근황을 소개합니다

김석준 회원님이 6·4지방선거를 통해 부산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후보 당시 '교육만은 특별시' '합리적 개혁교육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부산형 혁신학교 신설, 중학교 무상급식, 청렴한 학교 등의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김석준 회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유권자들과 약속한대로 부산 교육의 변화와 혁신, 희망을 바라는 일으키는 교육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봉득 회원님이 평상필름을 떠나, 불교TV PD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독립영화사 평상필름은 우리단체와 같은 공간에서 이웃하며, 오랜동안 같이 지내와서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제봉득 회원님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특유의 긍정성과 성실함으로 잘 해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최환웅 회원님 근황을 소개합니다. 최환웅 회원은 2007년 선거보도 모니터 활동에 참여했었는데요, 당시 외신 기사를 희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자가 되어 서울로 가면서 한동안 소식이 뜸했었는데요, 국내 언론사를 거쳐 현재는 목포대로 블룸버그 한국지사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아빠도 되었고요. 반갑고 또 축하드립니다.

하인상 회원님이 종합주간지 '오륙도 신문'을 창간했습니다. 남구신문 편집장으로 계시다 6개월 전 큰 뜻을 품고 지역언론 발행인이 되었습니다. 오륙도신문은 동부산권을 아우르는 종합주간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맛집, 관광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신문입니다. 창간한 지 6개월인 신생 언론이지만 튼튼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요 언론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오륙도신문 홈페이지는 www.oryukdonews.com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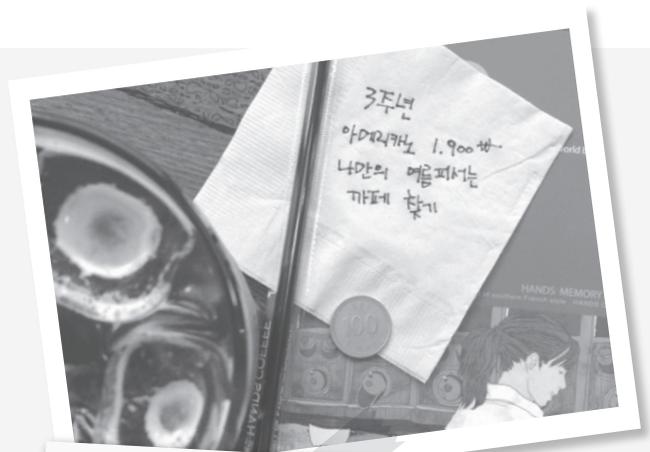
지난 몇년간 이맘때면 늘 그래왔다. 영화제작의 중요한 지점이었고, 8월 첫 주말을 제대로 즐기 위해 '이 지점을 잘 넘겨야 된다!' 각오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일 때문에 1년을 기다려온 영화제를 짹짹 마음으로 보낼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도 편집기에 앉아 머리를 싸매고 있다. 나의 여름은 7년 전부터 언제나 그 곳으로 향한다.

'별이 지는 하늘 영화가 뜨는 바다! 정동진독립영화제'
정동초등학교에서 8월 첫주 금토일에 열리는 영화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미난 영화를 한번에 그것도 공짜로 볼 수 있는 영화제. 운동장에 돛자리 깔고 영화 보다, 별이 지는 하늘을 보다, 옆지기와 술잔을 기울이다 쭈뼛에 취해 잠을 청할 수 있는 영화제.

다행히 해수욕장으로 유명하지 않은 덕에 낮은 어느 해수욕장보다 여유롭게 물놀이를 즐길수 있다는 것!!! 또한 독립영화의 특징상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대안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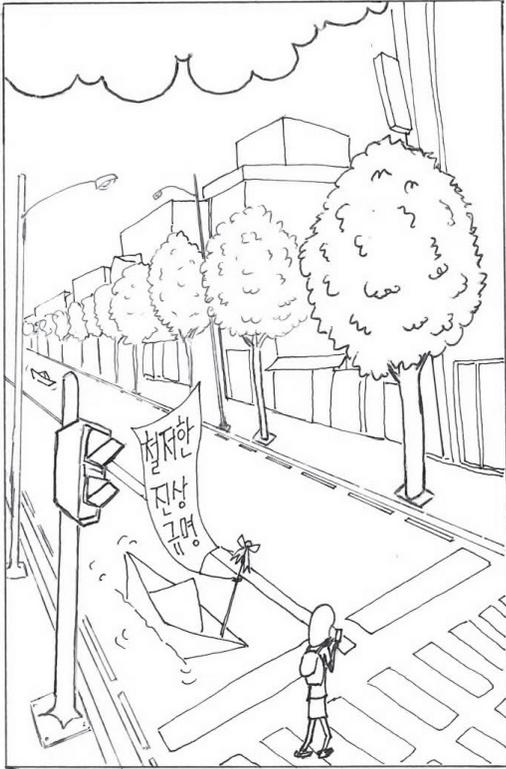
무엇보다 한번 오면 발길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낭만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정동진 영화제. 나의 여름은 언제나 정동진영화제로 향한다. ps. 부산민언련 회원님들, 8월 1일~3일에 열리는 정동진독립영화제로 오시면 제가 맛있는 점심 해드릴게요~~ㅎㅎ

박배일 회원



반송한 우은 갈아입고
산길책 한권 들고 부산대앞 카페 가서
아이스 아메리칸 마시면서 가끔
창밖으로 환기된 젊음은
바라보는 것이 시원한 여름휴가이다.

류창섭 회원



4월 16일
 이후
 개별 일은 학생만
 보기도 감성이
 머뭇머뭇하다.



고맙습니다

2014년 5, 6월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

가경욱 강동민 강승화 강아란 강필희 공진성 곽종교 구자문 구지영 권영란 권용협 권혁근 권호일 길재섭 김경준 김경화 김기식 김기종 김남지 김다혜 김대영 김대철 김동기 김명혜 김병국 김석준 김석환 김성연 김성우 김 숙 김아영 김어진이 김명민 김영준 김용범 김 옥 김유진 김은민 김재환 김정근 김정미 김정선 김정숙 김정훈 김정희 김종열 김종욱 김주만 김주미 김주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훈 김진숙 김진주 김차름 김철기 김태진 김태훈 김하원 김해몽 김현지 김형욱 김형진 김형천 김형철 김홍식 남원철 남정숙 노무법인나래 노정현 노현희 도상형 독고지은 류위훈 류은하 류창섭 문소영 문정임 문정임 문종대 문지용 문진호 민은희 박경배 박동혁 박봉환 박소영 박순옥 박순정 박시현 박영달 박재진 박재혁 박정민 박정희 박주희 박지선 박태순 박홍원 배일진 배재한 배철일 배혜래 백미화 복성경 서용순 서은숙 서주영 성민영 성은진 손영호 손주성 손현익 송인섭 송태연 신금아 신병률 신은제 신재희 신정식 신태섭 신현숙 심재훈 안명환 안병규 안상훈 안은숙 안지민 안지숙 엄상준 엄창현 예종일 오정무 오정숙 오지은 오창호 오혁진 옥서연 왕수봉 원경덕 유지호 유원경 유행현 윤대원 윤명숙 윤성호 윤순정 윤영태 윤태연 윤택근 이경균 이경미 이경식 이경태 이경희 이근호 이동일 이두원 이명곤 이명숙 이이미 이병주 이상기 이상진 이상희 이셋별 이설강 이성열 이승렬 이승신 이승환 이승훈 이영우 이오상 이원구 이원규 이일수 이지윤 이진규 이행봉 이현우 이혜숙 이호진 이희길 임대현 임상민 임숙경 임순평 임언수 임은희 임은정 임현주 장길만 장동범 장미영 장선화 장익진 장현수 장호출 장홍태 전대식 전미경 전미령 전유남 정경문 정경순 정경훈 정기평 정대원 정명수 정상도 정세화 정수진 정숙희 정순영 정영근 정우윤 정유진 정은주 정은혜 정자연 정재성 정재훈 제봉득 조경숙 조기종 조범수 조보고파 조봉권 조소희 조재형 조항제 조희란 주명혜 주은희 주정림 차동업 차진구 채 백 최동섭 최상원 최수미 최수영 최용국 최용수 최은정 최지수 최진혁 최태경 최한주 하미정 하성창 하은진 하인상 한현욱 허문화 허민경 허소희 허은영 허지안 홍유선 황대진 황상현 황영주 황지연

연회비 납부해주신 회원

김남원, 김상환, 김정우, 양승동, 이범수, 이진로, 부산MBC 노동조합

부산민언련은 정부 운영보조금 없이 후원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영화제작 인쇄디자인 커뮤니티미디어지원
www.meditory.net
 tel. 070.4349.0910
 email. meditory@meditory.net



부산민언련 회원이 되어 주세요!
 1994년부터 지역언론의 건강한 발전과 언론개혁의 한 길을 걸은 부산민언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사회, 공동체의 민주주의 발전은 그 사회의 거울인 언론을 바로 세우는데 힘을 보태주세요. 그 시작은 참여와 후원입니다.
 후원계좌 부산은행 021-01-054360-1 (예금주 부산민언련)